

# 자동차

## 현대/기아차, 16개월 연속 미국 M/S 상승

### 자동차/부품/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RA **이다빈**  
02. 6454-4882  
dabin.lee@meritz.co.kr

11월 미국 산업수요, 영업일수 증가/인센티브 상승/낮은 금리로 YoY 증가 (이하 YoY) 미국 3개사 (GM, Ford, Chrysler) 및 Jaguar Land Rover, Mercedes-Benz, Volvo 등 다수 업체 판매실적 미공개, 다만 JD Power 등 주요 전망기관은 총 수요의 YoY 소폭 개선을 예상. 영업일수 26일로 전년동월 대비 +1일 (+4%) 증가했으며, 산업평균 인센티브 \$3,759 (+1%)로 상승. 높은 소비심리 지수와 낮은 실업률 환경이 유지되며, 11월 SAAR 또한 1,700만대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 (전월 GM 파업 영향으로 1,655만대, 전년동월 1,750만대). 19년 연간 판매 또한 5년 연속 1,700만대 상회 가시성 높은 상황.

### 현대차 11월 미국 소매판매 62,768대 (+9.2%)

구형 Sedan 모델 판매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펠리세이드 증산 물량을 포함한 전반적인 SUV 모델들의 판매호조를 통해 13개월 연속 YoY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록. SUV 판매비중 55%로 전년동월 대비 +8%p 증가했으며, 수익성이 낮은 Fleet 판매비중 전년동월 대비 -33% 감소.

주요모델 판매동향: 쏘나타 -27%, 아반떼 -5%, 코나 +0.3%, 싼타페 +8%, 펠리세이드 5,268대 (지난 7월 출시 이후 월간 최대 판매, +21% MoM).

### 기아차 11월 미국 소매판매 50,504대 (+12.0%)

높은 대기수요를 보이고 있는 텔루라이드의 생산물량 증대효과 및 20년 신차 출시가 예정된 구형 SUV 모델의 재고 소진을 통해 높은 YoY 판매 증가 기록. SUV 판매비중 66% (+9%p)로 Mix 개선 지속 중.

주요모델 판매동향: K5 -2%, K3 -21%, 스포티지 +17%, 쏘렌토 +11%, 카니발 +56%, 텔루라이드 6,824대 (지난 3월 출시 이후 월간 최대 판매, +13% MoM).

현대/기아차 합산 미국 판매점유율 16개월 연속 상승. 양 사의 SUV 신차효과는 여전히 초기 국면이며, 노후 Sedan 모델 교체주기 곧 시작. YoY 판매 및 점유율 개선 추이 지속 전망.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